

## 조선 의가 이규준의 『황제내경』 의학 계승\* - 『의감중마』 「계경장부편」을 중심으로 -

<sup>1</sup>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오재근<sup>1</sup> \*\*

### Lee Gyoojoon, a Korean Medical Scientist's Succession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Medicine

Oh Chaekun<sup>1</sup> \*\*

<sup>1</sup>Dept.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

**Objectives** : I'd like to introduce a Korean medical scientist, Lee Gyoojoon (李圭峻, 1855-1923)'s achievements about *Huangdi's Internal Classic* (黃帝內經, *HIC*) to examine the Section of Viscera and Bowels to inspect the Medical Classics (稽經藏府篇, *SVBIM*) of the *Double grinded Medical Mirror* (醫鑑重磨, *DMM*), which is a medical book published in 1922, his last studies. And I'd like to describe its meaning of medical history.

**Methods** : For this, I compared the *DMM* with two primary texts, the representative medical books of Joseon dynasty,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TMEM*) and Lee's former research result of *HIC*, *Major Essential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Plain Question* (黃帝內經素問大要, *MEHIC*), in the aspects of the original text, annotation, editing, attached theses, and so on.

**Results** : Lee Gyoojoon criticized the *TMEM* in two aspects. First, it was unfocused and miscellaneous, second, it intended to help Yin Qi (陰氣) and reduce Yang Qi (陽氣) so that it regards a prime mover, Yang Qi, as an enem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he deleted miscellaneous articles and sort out the points to accord with the *HIC*. As a result, he had written the Section of *SVBIM* of the *DMM* in the form of revising the subtitles or refuting the contents of *TMEM* and quoted the partial texts of *MEHIC* to be written by the view of Supporting Yang Qi (扶陽).

**Conclusions** : Lee Gyoojoon proposed the Supporting Yang Qi medicine to preserve the Heart fire (心火) based on his lifelong Neo-Confucianism (性理學) study. The Section of *SVBIM* of the *DMM* showed how to apply his medical theory, which is achieved by th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 *HIC* to real clinical medicine through a medium of the *TMEM*. In addition, it could explain concretely how the Confucianists studied the medicine and how Confucianism can impact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heory.

**Key Words** : 이규준 (Lee Gyoojoon), 의감중마 (*Double grinded Medical Mirror*), 동의보감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황제내경 (*Huangdi's Internal Classic*), 황제내경소문대요 (*Major Essential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Plain Question*)

## 1. 서 론

이규준(李圭峻, 1855-1923)은 당대 조선 영남(嶺南) 지역 의학의 종주로 황도연(黃度淵), 이제마(李濟馬) 등과 함께 조선 말기 의학을 대표한다.<sup>1)</sup>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주역(周易)』 등에 대한 전문 저작을 집필한 유학자이였으며, 자신의 성리학 연구 성과를 의학 부분에 적용하고자 했던 전형적인 유의(儒醫)였다.<sup>2)</sup> 1906년에 새로 간행된 『황제내경소문대요(黃帝內經素問大要, 이하 소문대요)』와 1922년에 간행된 『의감중마(醫鑑重磨)』는 그의 의학을 대표한다. 『소문대요』가 『황제내경』을 자신의 대표 의학 이론인 부양론(扶陽論)에 따라 문헌적으로 검토하여 재구성하고, 원문 수정 및 주석 작업을 수행한 뒤 직접 저술한 논문을 첨부한 이론 연구 저작이었다면 『의감중마』는 임상 의서 『동의보감』을 축약하고 재구성하면서 『소문대요』의 성과까지도 집대성한 평생 의학 연구의 총결이었다.<sup>3)</sup>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Oh Chaeku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ung-Rd, Jechon-City, Chungbuk, 390-711, S.KOREA  
Tel: +82-43-649-1684, E-mail: dhworms@gmail.com.  
Received(21 January 2015), Revised(11 February 2015), Accepted(13 February 2015).

- 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8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서울. 들녘. 2011. p.25.
- 2) 儒醫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적 이상을 醫德과 醫論 등 의학의 전부분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의가이다(성호준. 儒醫의 개념정립과 張介賓.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p.135).
- 3) 이규준의 또 다른 의서 『본초경교정』은 필사본으로만 존재할 뿐 간행되지는 않았다. 『본초경교정』에 대해서는 오재근, 윤창열.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서지학적 고찰 및 내용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p.321-336 참조.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소문대요』 판본은 金信根이 편찬한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42책 중에 실린 목판본으로 끝에 密陽琴川新刊이라는 刊記가 표기되어 있다. 해당 표기로 보아 별도의 간행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오재근. 이규준 의서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208-210. 참조.

『의감중마』 1권 「계경장부편(稽經藏府篇)」 중에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논의가 집중 중첩되어 있어 자신의 의학 이론이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오장 육부를 중심으로 한 몸의 생리, 질병의 발생, 개별 질병의 병리 기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기초 의학 정보를 소개한 「의문입식(醫門入式)」과 함께 총론에 해당한다. 독자적인 성격마저 지니고 있는 만큼 「계경장부편」 분석은 이규준 의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첫 번째, 『의감중마』 「계경장부편」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 『동의보감』을 어떻게 갈아내고 닦아냈으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세 번째, 이전 저작 『소문대요』와는 어떠한 친연성을 보이는가, 네 번째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그 무렵 「계경장부편」의 편찬이 지니는 의학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경장부편」의 전체 구성을 『동의보감』과 비교하는 한편, 『동의보감』, 『소문대요』와 관련된 원문 및 주석을 일일이 비교 대조했다. 분석 결과를 일일이 제시할 수 없어 본문 중에서는 특징적인 부분만을 취해 서술했으며, 나머지는 표로 정리해 논문 끝에 부록으로 첨부했다. 『의감중마』 권 1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신유양장변(腎有兩藏辨)」, 「충유삼시변(蟲有三尸辨)」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 상의 특징을 학술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sup>4)</sup>

대요』 판본은 金信根이 편찬한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42책 중에 실린 목판본으로 끝에 密陽琴川新刊이라는 刊記가 표기되어 있다. 해당 표기로 보아 별도의 간행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오재근. 이규준 의서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208-210. 참조.

4) 부록으로 실린 「扶陽論」, 「氣血論」에 대한 검토는 금번 연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의감중마』 연구는 해제 작업 정도에 불과했으며 분석 수준 역시 깊지 않았다. 자신이 수집한 한국 의서들을 일일이 소개했던 미키사카에(三木榮)의 경우 『의감중마』의 출간 년도를 『소문대요』와 동일하게 1906년도로 파악하며 『동의보감』을 산정 또는 재검토한 저작으로 치부했고,<sup>5)</sup> 김두중(金斗鍾) 역시 자신의 의학 이론 「부양론」과 「기혈론(氣血論)」에 상통된 부분을 발췌한 책이다<sup>6)</sup>라는 단조로운 평가를 남겼다. 1990년대 이후, 이규준의 의학을 계승한 이원세의 『의감중마』 강의록이 소문학회(素問學會)를 통해 세간에 소개됐지만, 학술 연구 성과는 여전히 미미했다.<sup>7)</sup> 현재까지 『의감중마』에 대해서는 판본, 전체 구성, 약성가, 안병 이론 등에 대한 검토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김동우(2008)와 권오민 외 5인(2010)의 성과에 주목한다.<sup>8)</sup> 김동우(2008)는 『동의보감』 혈문(血門)과 『의감중마』의 관련 문장을 꼼꼼히 분석한 뒤 이규준의 의학과 『동의보감』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의 틀을 제시했다. 권오민 외 5인(2010)은 『경약전서(景岳全書)』, 『방약합편(方藥合

編)』 등 『동의보감』 이후 거두어진 의학적 성과가 『의감중마』 중에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계경장부편」의 구성이 『유경(類經)』과 흡사하고, 「신유양장변」은 장개빈(張介賓)을 비롯한 명대 은보학과 의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배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sup>9)</sup> 금번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감중마』 「계경장부편」 및 부설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연구를 위해 주로 활용된 『의감중마』 판본은 1999년 이원세 등에 의해 교감된 뒤 발간된 교감본 『의감중마』이다. 1922년 목판본과도 비교하여 판본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했으며, 『동의보감』, 『황제내경』, 그리고 이규준의 또 다른 저작 『소문대요』 등으로까지 비교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연구의 미비함을 보완했다.<sup>10)</sup>

## 2. 『의감중마』 「계경장부편」의 구성

『의감중마』는 표 1과 같이 「서(序)」, 「의감중마목록(醫鑑重磨目錄)」, 「역대의방(歷代醫方)」, 권수(卷首) 「의문입식」, 1권 「계경장부편」에 이어 개별 약물을 설명한 2권 「약성가(藥性歌)」, 병증의 구분, 진단 및 치료 방편을 담은 3·4권 「백병총괄편(百病總括篇)」, 구체적인 처방을 소개한 5·6권 「국방류선편(局方類選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역대의방」과 「의문입식」은 「계경장부편」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감중마』 「역대의방」에는 『본초』 이하 『의감중마』 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친 53종 의학 저작의 서명이 소개되어 있다.<sup>11)</sup> 「역대의방」 제목 상단에 기

구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 생각했다. 「부양론」에 대해서는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 이론에 관한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18(3). pp. 713-723 참조. 「기혈론」에 대해서는 황원덕. 「氣血論」 문구 중 "陰擬於陽, 必戰"에 대한 少考. 素問學會誌. 2013. 15. pp.1-8 참조.

5)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6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9, 280.

6)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63

7) 이규준, 서병오, 이원세로 이어지는 학맥의 전승 과정은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전승. 醫史學. 2014. 23(1). pp.57-98 참조. 이규준에게서 친자를 받은 제자 이원세는 생전 한의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의감중마』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1999년 박용화에 의해 그 내용 일부가 정리되고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의감중마강좌』라는 제목으로 대성의학사에서 발간되었지만 이원세나 그의 의학을 공식 계승한 소문학회로부터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8) 권오민 외 5인.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2010. 16(1). pp.1-9; 김동우. 『醫鑑重磨』와 『東醫寶鑑』의 血門에 대한 비교고찰. 素問學會誌. 2008. 11(1). pp.41-48;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藥性歌에 관한 연구. 素問學會誌. 2009. 12(1). pp.9-27; 이상만, 엄현섭, 지규용. 四聖心源과 醫鑑重磨의 안병이론에 관한 비교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5). pp.1141-1146.

9) 권오민 외 5인.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2010. 16(1). p.4, 8.

10) 현재까지 알려진 『의감중마』 판본은 1922년에 서병오가 발행한 목판본, 발행년도를 알 수 없는 목판본, 이원세의 필사본, 박희생의 원도 및 한글 번역본, 이원세 교감본의 총 5종이다. 『의감중마』 판본 간 비교 및 교감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연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11) 『동의보감』 「역대의방」은 『동의보감』의 참고문헌 목록이 아닌 『동의보감』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과 조선의 의학

Table 1. Construction of the *DMM* 『의감중마』의 전체 구성

| 권   | 구분   |
|-----|--|
| -   | 序 醫鑑重磨目録 歷代醫方  |
| 卷首  | 醫門入式 五行類象 六經起止歌 藏府圖  |
| 卷之一 | 稽經藏府篇  |
| 卷之二 | 藥性歌  |
| 卷之三 | 百病總括篇 上<br>外感 寒 暑 風 濕 燥 火 內傷 飮食 勞倦 虛勞 內景 精神 氣 血 夢 聲音 津液 痰飲 小便 大便 蟲   |
| 卷之四 | 百病總括篇 下<br>外形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胸 乳 腹 腰 脇 膈 皮毛 鬚髮 前陰 後陰 手足 雜病 嘔吐 霍亂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br>渴 黃疸 痿痺 邪祟 癰疽 諸瘡 婦人 小兒 養老 |
| 卷之五 | 局方類選篇 上<br>外感 同上 內傷 同上 內景 同上 外形 同上   |
| 卷之六 | 局方類選篇 下<br>雜病 同上 製造 雜方 諸傷 解毒 食忌  |

\* 「계경장부편」의 세부 구성은 표 2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으므로 생략했음.

재되어 있는 『동의보감』에서 끌어왔다는 표현과<sup>12)</sup> 함께 개별 의서 저자 소개 내용이 『동의보감』 「역대의방」과 동일한 점, 유완소(劉完素)의 의서 『소문현기원병식(素問玄機原病式)』을 『원병식』과 『소문현기』로 나눠서 기재하고 『고금의감(古今醫鑑)』과 『만병회춘(萬病回春)』을 공신(龔信)의 저술로 소개하는 『동의보감』의 오류를 반복한 점 등은 『동의보감』에 대한 의존도를 잘 보여준다.<sup>13)</sup> 그러나, 『동의보감』 「역대의방」에 수록된 86종 의서가 어떤 기준으로 53종으로 압축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sup>14)</sup>

「의문입식」 중에는 오행(五行)의 상생상극 관계를 설명하고, 사계절·방위·색깔·맛 그리고 몸의 각 요소를 오행 속성에 따라 분류한 오행류상(五行類象), 십이경맥의 기시점과 중지점을 노랫글로 소개한 육경기지가(六經起止歌), 몸의 측면과 오장을 묘사한 장부도(藏府圖), 팔·다리의 골격과 경맥 순행을 소개한 수족도(手足圖)와 함께 십이경맥과 임맥, 독맥, 충맥, 대맥 등의 운행 경로를 소개한 문장이 실려 있다. 오행류상과 육경기지가는 『소문대요』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장부도의 경우 『소문대요』가 아닌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 간장도(肝臟圖), 심장도(心臟圖) 등을 가져왔다. 그 중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에 표기되어 있던 혼백의 구멍, 니환궁(泥丸宮)과 정기(精氣)가 오르내리는 통로, 옥침관(玉枕關), 녹록관(轆轤關), 미려관(尾閭關)의 표기는 생략되어 설명이 요구된다.<sup>15)</sup> 수족도는 『동의보감』에는 없는 것으로 『소문대요』의 그림을 발전시

전통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86-87). 『의감중마』 「역대의방」 마찬가지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참고문헌 목록으로는 볼 수 없다. 권오민 외 5인(2010)이 『의감중마』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밝힌 의서 『경약전서』, 『방약합편』 등 역시 「역대의방」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7.  
 13) 김홍균, 김남일.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 21(1). p.115.  
 14) 『의감중마』가 藥性歌를 통해 본초의 성미, 효능 등을 소개하고 있고, 침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에 『食療本草』, 『經史證類備用本草』 등의 본초 전문 저작이나 『神應鍼經』 등의 침구 저작의 생략을 설명 가능하다. 그

러나 나머지 저작들의 생략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문제는 『의감중마』에 대한 전체 검토가 마무리된 뒤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15) 泥丸宮, 玉枕關 등의 생략 연유에 대해서는 아래 5. 『의감중마』의 편찬과 이규준의 학문 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킨 것으로 보인다. 『소문대요』의 경우 장부도에 이어 천지십간(天之十干), 지지십이(地之十二地), 객육기(客六氣), 주육기(主六氣), 태시천원오운도(太始天元五運圖), 갑자년돈부기운기지도(甲子年敦阜紀運氣之圖) 등의 그림을 수록해두었고, 『동의보감』 역시 오행성쇠도(五行盛衰圖), 십간기운도(十干起運圖), 십이지사천결(十二支司天訣)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지만, 『의감중마』는 운기와 관련된 위의 그림은 모두 생략했다. 운기의 변화에 따라 기계적으로 질병이 발생한다는 질병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황제내경소문』 「지진요대론(至眞要大論)」의 핵심 논의인 운기 관련 언설은 모두 생략한 채 특정 부분만을 병기(病機) 항목을 구성한 점, 『소문대요』 부설 중에서 화(火)의 기운이 왕성한 해에 설사병을 앓는 이유를 풀이했던 주하해(注下解)를 삭제한 점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 요컨대, 오행류상, 육경기지가, 수족도 등은 『소문대요』로부터 가져오면서도 장부도는 『동의보감』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동의보감』 신형장부도를 인용하고 있지만 니환궁, 옥침관 등은 생략한 것, 『소문대요』의 수족도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 없던 뼈 그림이 추가된 것, 『소문대요』, 『동의보감』의 운기 관련 그림은 모두 배제한 것 등은 모두 『의감중마』가 『소문대요』와 『동의보감』의 학술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의서임을 시사한다.

『의감중마』 1권 「계경장부편」은 표 2에서 보듯이 오장과 육부, 기(氣)·혈(血)·정(精) 그리고 양기(陽氣), 질병 발생과 치료 I, 질병 발생과 치료 II, 부설(附說)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오장과 육부 항

목에서는 오장육부의 음양 오행 배속, 형상과 부위, 오장과 육부 간의 관계, 기능 및 역할, 오장 육부와 부속 기관 간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기·혈·정 그리고 양기 항목에서는 몸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기혈(氣血)의 운행, 탄생과 생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인 정(精), 그리고 정(精)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질병 발생과 치료 I 항목에서는 오장이 병드는 이유, 오장과 육부의 병증, 오장 병의 변화, 그리고 치료 등을 다루었으며, 네 번째, 질병 발생과 치료 II 항목에서는 비위의 병증, 풍과 열이 일으키는 병증, 통증의 양상, 학질과 결증, 다양한 병리 기전 및 치료 원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부설에서는 자신의 대표적인 의학 논문인 「부양론」, 「기혈론」과 함께 ‘좌신수우명문화론(左腎水右命門火論)’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신유양장변」, 삼시충(三尸蟲)에 대한 유학자로서의 견해를 담은 「충유삼시변」을 실어두었다. 오장과 육부, 기·혈·정 그리고 양기, 질병 발생과 치료 I까지는 모두 장부음양(藏府陰陽), 장부배합(藏府配合) 등처럼 소재목을 내세운 뒤 구체 내용을 전개하는 『동의보감』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의 소재목은 여러 개의 내용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 중의 문장 대부분은 출처를 『내경』, 『영추』로 표기하고 있어 의학 경전을 통해 장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던 1권의 제목, 계경장부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질병 발생과 치료 II에서는 「태음양명론(太陰陽明論)」, 「풍론(風論)」 등 『황제내경』의 편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본문 역시 『황제내경』의 문장을 그대로

Table 2. Construction of the SVBIM of the *DMM* 『의감중마』 「계경장부편」의 구성

|                       |  |              |
|-----------------------|--|--------------|
| 稽<br>經<br>藏<br>府<br>篇 | 藏府陰陽 藏府配合 五藏體用 六府傳受 五藏主時 五藏有官 藏府所司 身形所屬      | 오장과 육부       |
|                       | 氣血榮衛 男女精胞 精盛有子 陽密能壽                          | 기·혈·정 그리고 양기 |
|                       | 五藏中邪 五藏病證 六府病證 藏府病虛實 藏府病異證 五藏病間甚 五藏病傳乘 五藏病治法 | 질병 발생과 치료 I  |
|                       | 「太陰陽明論」 「風論」 「熱論」 「舉痛論」 「瘡論」 「厥論」 病機         | 질병 발생과 치료 II |
|                       |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蟲有三尸辨」                  | 부설           |

인용해 재구성해냈다.

「계경장부편」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감중마』의 편찬은 우인(友人) 김선구(金善久)가 『동의보감』을 간추려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16)</sup> 땅 속에 묻혀 있던 오래된 거울, 『동의보감』을 갈고 닦았다는 이규준 스스로의 평가<sup>17)</sup>나 앞서 살펴보았던 「의문입식」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감중마』가 『동의보감』의 토대 위에 편찬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서문 중에서 이규준은 모본(母本)이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며 편찬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내용이 산만하여 주된 요점이라 할 것이 없으며 잡다하고 정미롭지 않다는 것이었고(散而無主, 雜而不精), 두 번째는 음기(陰氣)를 돕고 양기(陽氣)를 깎아내려 몸의 주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助陰剝陽, 認主爲賊).<sup>18)</sup> 첫 번째 문제점은 『동의보감』 편찬 이래 누차 지적되어오던 것으로 정조(正祖)나 정조 대의 내국(內局) 수의(首醫) 강명길(康命吉), 고종(高宗) 대의 의가 황도연 등의 문제 의식과 동일했다. 이들의 문제 의식은 『동의보감』을 축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서, 『수민묘진(壽民妙詮)』, 『제중신편(濟衆新編)』, 『의종손익(醫宗損益)』 등의 편찬으로 이어졌으며,<sup>19)</sup> 이규준의 『의감중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존 『동의보감』 축약 의서들과 『의감중마』 간의 차이는 두 번째 문제 의식에 있었다.

이규준은 황제(黃帝)·기백(岐伯)을 비롯한 성인들이 양기(陽氣)를 위주로 하늘의 운행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설명했으며, 병을 일으키는 사기(邪氣)는 풍한(風寒)이고 그에 대항하는 정기(精氣)가 바로

양기(陽氣)라고 주장했다.<sup>20)</sup> 그리고 양기의 근원이란 할 수 있는 심화(心火)를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길이자<sup>21)</sup> 성인의 뜻에 따라 몸을 다스리는 방편이라고 파악했다. 그에게 있어 화(火)를 주된 발병 요인으로 꼽고 찬 성질의 약을 사용한 유완소나 몸 중에 항상 부족한 음기를 보충하기 위해 자음약(滋陰藥)을 복용시켰던 주진형(朱震亨)의 의학은 『황제내경』의 본래 뜻에도 어긋나고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의학일 뿐이었다.<sup>22)</sup> 『동의보감』의 저자들이 이들의 의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음기는 돕고 양기는 죽이게 되었다(助陰殺陽)는 것, 이것이 이규준의 두 번째 문제 의식이었다.<sup>23)</sup>

이러한 문제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이규준은 『동의보감』 중의 번잡하고 어지러운 내용은 제거하고 요점만을 가려 취하되, 『황제내경』의 뜻에 합치되는 것만을 골라내는 방법을 선택했다.<sup>24)</sup> 번잡한 문장은 삭제하고 소홀히 다룬 증상이나 빠뜨린 처방을 보완하고자 했던 정조, 강명길, 황도연 등과 달리 『황제내경』 의학은 부양(扶陽) 의학이라라는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취사선택 했던 것이다.

### 3. 『의감중마』 「계경장부편」과 『동의보감』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의감중마』와 『동의보감』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의감중마』 「계경장부편」 전반부는 소제목을 내세운 뒤 세부 내용을 기술하거나 작은 글자로 원문 출처를 기재하는 등 『동의보감』의 편찬 방식과 동일하다. 심지어 『동의보감』의 일부를 그대로

16)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7.

17)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7.

18)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7.

19) 『조선왕조실록』 [cited 2015 Jan 16] 正祖 52권, 23년 (1799) 12월 11일.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5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17-18.

20)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96.

21)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00.

22) 이규준 편저. 素問大要. 서울. 대성의학사. 1999. p.3.

23)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

24)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

로 옮겨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일게 한다. 「계경장부편」에서 주로 설명했던 오장 육부에 대한 내용 역시 간형상(肝形象), 간부위(肝部位), 심형상(心形象), 심부위(心部位) 등 『동의보감』의 소제목이나 문장 일부 만을 취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 추가는 없었다. 기(氣), 혈(血), 정(精)을 몸의 주된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설명을 진행하는 것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부에서 발생하는 병증에 대한 설명,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소개 역시 그러했다.

「계경장부편」과 『동의보감』 간의 뚜렷한 차이는 『동의보감』 문장의 축약과 부양론에 입각한 내용의 반박 또는 변경이었다. 『동의보감』이 과감하게 압축되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계경장부편」 전체 분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약은 부록 1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소제목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경장부편」 장부음양(藏府陰陽)은 『동의보감』 장부음양(臟腑陰陽)과 장부이용(臟腑異用)의 내용이 합쳐졌으며, 오장체용(五藏體用)은 『동의보감』 간주시일(肝主時日), 간속물류(肝屬物類), 심주시일(心主時日), 심속물류(心屬物類) 등이 합쳐졌다. 「계경장부편」 소제목 이하 문장의 인용은 제한된 의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일부 주석에서 「내경주」(內經注, 王冰의 『황제내경』 주석), 『입문』(入門, 李梴의 『醫學入門』), 『동인』(銅人, 王維一的 『銅人脈穴針灸圖經』), 『의학강목』(醫學綱目) 등의 후대 저작을 참고한 것 이외에 본문 대부분의 문장 출처는 의학 경전인 「내경(內經)」, 『영추(靈樞)」, 『난경(難經)」으로 국한됐다.

『동의보감』에 대한 반박은 첫 번째,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두 번째, 소제목을 수정하며, 세 번째, 주석 및 별도 논문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동의보감』은 「내경편(內景篇)」에서 정기신(精氣神)에 대한 설명을 내세우며 도가 양생론의 관점에 입각한 몸의 논리를 구축했다.<sup>25)</sup> 이규준 역시 『의감중마』 「백병총괄편」 내경(內景) 중에서 정(精)·신(神)·기(氣)를 소제목으로 꼽았지만, 누

정(漏精), 경계(驚悸), 전광(顛狂), 중기(中氣) 등 관련 질병과 치료 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편성일 뿐이었다. 「계경장부편」에서는 기혈 운행, 생명 탄생과 생식, 장수(長壽) 등의 논의를 위해 기(氣), 혈(血), 정(精)의 개념을 활용했으며, 신(神)에 대한 논의는 등장조차 시키지 않았다. 『동의보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던 정기신론(精氣神論)은 구체적인 질병 논의 중에 그 흔적 만이 남겨져 있었다.<sup>26)</sup>

두 번째, 「계경장부편」의 『동의보감』 소제목 수정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장부음양(藏府陰陽), 장부배합(藏府配合), 오장체용(五藏體用) 등의 소제목은 『동의보감』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 글자를 수정하거나, 또는 본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었다. 그 중 양밀능수(陽密能壽)는 소제목 수정 과정 중에 이규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양밀능수는 『동의보감』의 소제목 정의비밀(精宜秘密), 절욕저정(節慾儲精) 일부와 『황제내경』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 칠손팔익(七損八益) 논의의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의보감』 정의비밀(精宜秘密)은 양기(陽氣)와 관련된 생리·병리 논의를 이어가다가 음양의 요점은 양기를 치밀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던 『황제내경』 「생기통천론(生氣通天論)」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후반부에 비정(秘精)을 목표로 한 처방이 삽입됨과 동시에 동시에 정(精)을 보전하여 수명 연장을 꾀하는 도가 양생술 색깔이 농후한 소제목, 정의비밀(精宜秘密)로 바뀌어졌다. 반면 이규준은 『동의보감』 중의 정기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는 문제를 치료하는 처방(治精氣不固)을 모두 삭제했다. 이어 성인의 양생법을 다룬 「음양응상대론」 문장을 삽입하고 양기를 치밀하게 유지하는 것(陽密)이 성인이 몸을 다스리는 궁극의 방법이며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能壽)는 『황제내경』 논의로 소제목을 수정했다. 「부양론」 말미에서 이야기했던 “『황제내경」

25) 성호준.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教思想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1). pp.263-267; 조남호. 『동의보감』의 이론적 구조와 그 성격. 東方學志. 2006. 134. pp.342-347.

26) 『의감중마』 보다 앞서 편찬된 관찬 의서 『제중신편』 중에서 도교적인 내용이 담긴 『동의보감』의 精氣神論은 이미 해체된 상태에 있었다(박석준. 동아시아 전근대 의학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성격.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141-143).

Table 3. Re-edition of To dense Yang Qi can make long life on the SVBIM of the *DMM* 『의감중마』 「계경장부편」 양밀능수(陽密能壽)의 재편집

| 『황제내경소문』      | 『동의보감』   | 『의감중마』 「계경장부편」  |
|---------------|--|---|
| 生氣通天論         | 精宜秘密   | 陽密能壽  |
| 凡陰陽之要，陽密乃固... | 內經曰，凡陰陽之要，陽密乃固...<br>註曰，陰陽交會之要，正在於陽氣閉密而不妄泄爾。密不妄泄，則生氣強固而能久長，此聖人之道也...<br>秘精宜服，金鎖思仙丹，大鳳髓丹，秘眞丸，玉露丸，金鎖丹。 | 凡陰陽之要，陽密乃固...<br>是以聖人為無為之事，樂恬憺之能，從欲快志於虛無之守，故壽命無窮，與天地終，此聖人之治身也。<br>資生曰，內經以八八之數為精髓竭之年，是當節其慾矣... 宜節不知節，宜絕不能絕，坐此而喪生，蓋自取之。 |

Table 4. Comparison of treatments about Kidney disease between the *TMEM*, *DMM*, and *MEHIC*'s annotation 『동의보감』과 『의감중마』, 『소문대요』의 주석에 기재된 신장병 치료법 비교

| 의서   | 구분        | 원문 및 주석  |
|------|-----------|--|
| 동의보감 | 腎病<br>治法  | 腎苦燥，急食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氣也。腎欲堅，急食苦以堅之，用苦補之，鹹瀉之。『內經』... ○腎本無實不可瀉，錢氏只有補腎地黃元，無瀉腎之藥。『綱目』  |
| 의감중마 | 五藏病<br>治法 | 腎苦燥，急食辛以潤之，開腠理，致津液通氣也。腎欲堅，急食苦以堅之，用苦補之，鹹瀉之。『內經』○綱目云，腎本無實不可瀉。愚謂，心肺陽也，故補以陰味。肝腎陰也，故補以陽氣。所謂用苦補者，瀉其濕耳，瀉濕則腎堅矣。故心肺欲清收，肝腎欲溫散，此裁相交濟之妙也。新訂。 |
| 소문대요 | 藏氣法<br>時論 | 心肺欲清涼，故用酸苦，肝腎欲溫燥，故用辛甘，此陰陽交濟之理也。<br>肝陰中之陽，故辛酸以濟之。肺陽中之陰，故酸辛以濟之。<br>用苦補腎者，苦熱以燥濕也。用鹹瀉腎者，稟以消積也。                                       |

18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기가 치밀해지면 생명은 단단하게 보전된다(陽密乃固)는 것이다”<sup>27)</sup>는 논의 그대로 정(精)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동의보감』의 소제목을 양기(陽氣) 중심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단, 『동의보감』에 소개된 절욕(節慾)을 통한 정(精)의 보전 방법 만큼은 버리지 않아 유학자 이규준이 추구했던 양생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sup>28)</sup>

27)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97-98. 陽密乃固의 풀이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양기가 치밀하게 채워지면 생명은 단단하게 보전된다(陽秘密則生乃固矣)”고 주석했던 이규준의 견해를 따랐다.

28)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하 5. 『의감중마』의 편찬과 이규준의

세 번째, 「계경장부편」에서는 주석과 별도 논문을 통해 『동의보감』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의감중마』 본문에서 이규준의 목소리는 교정(訂) 또는 새로운 교정(新訂)이라는 표기를 통해 확인된다.<sup>29)</sup> 「계경장부편」 오장병치법(五藏病治法) 말미에 주석으로 기술된 오장병 치료 원칙이 대표적이다. 표 4에서처럼 『동의보감』은 신장병 치료에 대해 “신장은 기운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 급히 쓴 맛을 먹어 신장의 기운을 단단하게 수렴시킨다. 쓴 맛으

학문 중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9) 『의감중마』를 통틀어 「계경장부편」에서는 교정이 1차례, 새로운 교정이 1차례, 「백병총괄편」에서는 교정이 1차례, 새로운 교정이 6차례로, 총 9차례 등장한다.

로 신장을 보충하는 것이다”<sup>30)</sup>라는 『황제내경』 문장을 인용한 뒤, “신장은 본래 충실하지 않으니 기운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을(錢乙)은 신장을 보충하는 육미지황원(六味地黃元) 만을 사용했고, 신장의 기운을 빼내는 약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학강목』의 견해를 인용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쓴 맛은 배설 작용을 일으키거나, 습기를 말려 건조하게 하는 효능을 지닌다.<sup>31)</sup> 『동의보감』 역시 「탕액편」에서 “쓴 맛은 습기를 말리고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 곧장 아래로 내려가 배설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기재해두었다.<sup>32)</sup> 두 문장에 따르면 쓴 맛은 배설 작용과 함께 기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므로 기운을 단단하게 유지해야 하는 신장 치료법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동의보감』은 별다른 해명 없이 신장병 치료 처방으로 육미지황원(六味地黃元)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속지황·산수유·산약·백복령·택사·목단피로 구성된 육미지황원은 목단피 단 하나 만이 쓴 맛을 지니고 있어 쓴 맛을 먹어 신장의 기운을 수렴시키거나 신장을 보충한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규준은 『의학강목』 인용 문장을 삭제한 뒤, “쓴 맛이 기운을 덜어내는 작용을 함에도 신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습기(濕)를 덜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운이 단단하게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sup>33)</sup>는 주석을 달아 쓴 맛의 효능과 신장병 치료법 간의 괴리를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장은 발산하는 속성의 양(陽)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차가운 성질로 수렴하는 효능의 음미(陰味)로써 보완해주어야 하고, 간장과 신장은 수렴하는 속성의 음(陰)에 해당하는 장기이므로 따뜻한 성질로써 발산하도록 하는 양기(陽氣)로써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는 오장 간의 상호교제를 강조하면서 치료 원칙 청상통중온하(淸上通中溫下)를

제기했다.<sup>34)</sup>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의학강목』의 문장은 “신장에서는 주로 허한 증상이 나타나고 실한 증상은 없다(腎主虛, 無實也)”, “신장에서는 주로 허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기운을 빼내는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腎主虛, 不受瀉)”라는<sup>35)</sup> 전을(錢乙)의 견해를 받아들여 육미지황원(六味地黃元)의 활용을 강조했던 왕호고(王好古)의 기술을 재인용한 것이다.<sup>36)</sup> 그리고 이 견해는 “음기가 없으면 양기는 변화할 수 없다. 신장 진음(眞陰)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양기는 저절로 생겨나게 되며 정수(精髓)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신수(腎水)에 해당하는 왼쪽 신장과 명문상화(命門相火)에 해당하는 오른쪽 신장,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신장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의 부족한 음기는 보충하고 음기 부족을 조래하는 화기(火邪)는 제거해야 한다”는 왕호고의 스승이자 금원사대의가(金元四大醫家) 중의 한 사람, 이고(李杲)의 견해와도 맞닿아 있다.<sup>37)</sup> 『동의보감』에서 제시했던

30) 郭霽春 編,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p.146.

31) 郭霽春 編,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p.31, 142.

32) 許浚, 東醫寶鑑,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4 책,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290.

33)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60.

34)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60. 문맥에 맞게 한글 풀이 순서를 변경했다. 「계경장부편」의 주석은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주석과 거의 일치한다. 『소문대요』 주석과의 비교는 이하 4. 『의감중마』 「계경장부편」과 『소문대요』 사이의 친연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준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치료 원칙, 淸上通中溫下는 그의 저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제자인 이원세의 기억과 구전을 통해 세간에 소개되었다(소문학회 홈페이지, [cited 2015 Jan 16]. 이원세 동영상강좌 57-1. Available from: URL: <http://www.somun.or.kr/>).

본문 중에서 제시한 『동의보감』과 『의감중마』의 차이점 세 가지로 안상우가 제기한 『의감중마』 27편 小論이 대개 寶鑑과 素問 章句를 절묘하게 배합시켜 상치되지 않게 결부시킨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된다. 관련 내용은 안상우, 고의서산책 154. 민족의학신문 2003년 4월 25일 [cited 2015 Jan 16]. Available from: URL: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 참조.

35) 錢乙, 小兒藥証直訣, 李志庸 主編, 錢乙劉昉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4, 26.

36)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6.

37) 李杲, 醫學發明, 張年順, 吳少禎, 張海凌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5. 錢乙이 주장한 腎主虛, 無實也의 견해는 朱震亨의 陽有餘, 陰不足論, 張介賓의 陽非有餘, 陰常不足論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李志庸 主編, 錢乙劉昉醫學全書 중 錢乙醫

신장 병증 치료 방안은 결국 신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동의보감』 신장유이(腎臟有二)에서는 『난경』 36년을 인용하며 오른쪽 신장이 명문 입을 밝혔으나, 명문 중에 상화가 존재한다는 언급은 기술하지 않았다.<sup>38)</sup> 그렇지만 『동의보감』의 여러 구절 및 처방 중에서는 명문상화(命門相火), 명문화(命門火)를 언급하고 있으며, 「잡병편(雜病篇)」 「신병치법(腎虛治法)」에서는 왼쪽 신장은 수(水)이지만, 오른쪽 신장은 명문이며 화(火)에 속함을 분명히 밝혔다.<sup>39)</sup> 이에 대해 이규준은 「계경장부편」 후반에 「신유양장변」을 첨부하여 ‘좌신수우명문화설(左腎水右命門火說)’을 수용한 『동의보감』에 동조하지 않음을 천명했다.

권오민 외 5인(2010)은 선행연구에서 「신유양장변」이 명대 의가 장개빈 등의 명문학설, 신장이 화(火)에 속하는 명문(命門)과 수(水)에 속하는 신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관점이나 이것들이 생명활동의 핵심이며 의학적 처치의 중심이 된다는 신장 중심설(腎中心說)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았다.<sup>40)</sup> 이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신유양장변」 어딘가에서 장개빈을 비롯한 온보학과 의가들의 견해가 소개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류선편」에서 장개빈의 일부 처방이 소개된 것 이외에 부록 논문 및 「계경장부편」 어디에서도 온보학과 의가들의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 이규준이 「신유양장변」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온보학과가 아닌 『동의보감』에 대한 반대이자, 나아가 『난경』의 신장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논지를 폄하던 이고(李果), 주진형(朱震亨), 이천(李梴), 루영(樓英) 등 후대 의가들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미 공인되어 있던 의학 견해였으므로 반박을 위해

서는 별도의 논문 작성이 요구됐다.

「신유양장변」 중에 서술된 이규준의 의문과 비판은 명료했다. 그의 의문은 하늘의 북쪽에 오행 중의 수(水)가 자리하고 있으니 그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장 역시 수(水)에 배속되어야 한다. 『난경』에서 왼쪽 신장에 수(水)를, 오른쪽 신장에 화(火)를 배속한 것이 과연 진월인(秦越人) 본인의 말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sup>41)</sup> 유학자이면서 의학자였던 그는 심장을 생리적인 차원의 혈육지심(血肉之心) 만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여 받아 온 몸을 주재하는 무형의 령(無形之靈)이 간직된 곳이며<sup>42)</sup> 존재의 시발(始發)이자 선악 판단의 근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명문(命門)은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心包)이며,<sup>43)</sup> 상화(相火)는 별도로 존재하는 화(火)가 아닌 심화(心火)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이해했다.<sup>44)</sup>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명의 근원 기운이자 심장의 기운이기도 한 심화(心火), 곧 진화(眞火)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심화를 진정시켜 맑아지도록 하거나(淸上), 심화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거나(通中), 심화가 쉽게 식을 수 있는 부분은 덥혀주는(溫下) 등의 의학적 치료 방법을 채택하고, 심장의 양기를 잘 기르고 은밀한 곳에 갈무리해야 한다는 유가적 심성 수양 방식을 강조했다.<sup>45)</sup> 덧붙여 사람에게 신장이 두 개인 이유는 현재의 몸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로서 몸의 근본이 되는 정(精)을 만들어내는 명문이 자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sup>46)</sup> 겨울이 일 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p.60-62 참조.

38) 命門은 『難經』에서 2차례 등장한다. 오른쪽 신장을 命門이라고 지칭했지만 精神이 간직되어 있으며, 原氣가 매여있다고 표현했을 뿐 신장은 水, 명문은 火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39) 許浚, 東醫寶鑑.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4 권,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290.

40) 권오민 외 5인.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2010. 16(1). p.5.

41)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100-101.

42) 성호준은 이와 같은 이규준의 심장에 대한 견해를 “形而上下를 일관하는 形神合一적인 心”이라고 명명했다(성호준, 조선 후기 儒醫 李圭峻의 心에 관한 研究. 東洋文化研究. 2012. 9. p.56).

43)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01. 중국 명대의 混若水나 조선의 鄭齊斗 역시 명문을 심포로 이해했다(성호준, 조선 후기 儒醫 李圭峻의 心에 관한 研究. 東洋文化研究. 2012. 9. pp.61-62).

44)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95.

45) 성호준, 조선 후기 儒醫 李圭峻의 心에 관한 研究. 東洋文化研究. 2012. 9. p.60.

46) 許浚, 東醫寶鑑.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1

럼 한쪽에서는 간직(納)을 한쪽에서는 배출(泄)을 담당하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었다.<sup>47)</sup> 이와 같은 논리 하에서는 수(水)에 해당하는 오른쪽 신장에 화(火), 곧 명문상화(命門相火)를 배속시킨 뒤 질병을 일으키는 상화의 망동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완소의 견해나 상화로 인해 항상 부족한 신장의 음기를 보충하고 음기 부족을 조래하는 화사(火邪)는 제거해야 한다는 이고, 주진형 등의 견해는 자칫 심화(心火)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비판될 수 밖에 없었다.

#### 4. 『의감중마』 「계경장부편」과 『소문대요』 사이의 친연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경장부편」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태음양명론」, 「풍론」 등의 편명은 『황제내경』과 동일하며, 그 내용 역시 차이가 없다. 이규준의 『황제내경』 연구는 『의감중마』보다 15년 가량 앞서 간행된 『소문대요』를 통해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의감중마』 중에서 재차 『황제내경』의 구성과 원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계경장부편」 전반부에서 오장육부의 전반적인 생리, 병리, 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이미 나열해 둔 점, 후반부 마지막 소제목인 병기(病機)에서 19가지 병리 기전을 소개한 뒤 탕약, 침구 등을 활용한 치료법 및 치료 원칙을 소개한 점, 이어지는 「백병총괄편」에서는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다루고 있는 점, 그리고 『황제내경』 편명 아래 모든 문장의 출처가 『황제내경』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황제내경』 중에도 비위(脾胃) 병증을 비롯한 풍증(風證), 비증(痺證), 열증(熱證), 각종 통증 등 여러 병증의 원인이나 발병 양상, 진단 및 치료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니, 의학 이론적인 측면이 아닌 임상 의학 측면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황제내경』을 연구한 『소문대요』와 『의감중마』<sup>48)</sup>

계경장부편」 사이의 친연성은 아래의 네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록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경장부편」 후반부, 질병 발생과 치료 II의 구성은 「태음양명론」, 「풍론」, 「열론」, 「거통론」, 「학론」, 「결론」 그리고 「병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소문대요』 2권과 다를 바 없다. 『소문대요』 「풍론」 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생기통천론」과 『영추』 「논질진척(論疾診尺)」의 문장이 「계경장부편」 「풍론」에서 활용되고 있고,<sup>48)</sup> 『소문대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결론」이 『황제내경소문』 「조경론(調經論)」, 「결론(厥論)」, 「위론(痿論)」 등의 문장을 취해 새롭게 구성된 점 만이 다를 뿐이다.

두 번째, 「계경장부편」, 『황제내경』 그리고 『소문대요』 문장의 비교는 「계경장부편」 작성에 어떤 『황제내경』 판본 보다 자신의 저술인 『소문대요』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sup>49)</sup> 부록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경장부편」에서 『내경』으로 출처 표기를 하고 인용한 문장들은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수정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기의 원인으로(因於氣)”를 “풍의 원인으로(因於風)”으로 수정하거나, “하법을 쓸 수 있다(可下)”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可溫而已)”로 수정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의감중마』 중에는 오장주시(五藏走時) 항목의 “심은 삶의 뿌리이고 신이 거처한다(心者, 生之本, 神之居也)”의 문장처럼 『소문대요』 「육절장상론」이나 『동의보감』 「심장문」의 심주시일(心主時日)의 문장인 “심은 삶의 뿌리이고 신이 변화한다(心者, 生之本, 神之變也)”의 표기와 동일하지 않은 독자적인 부분 역시 존재한다.

세 번째, 「계경장부편」의 주석은 부록 3에서처럼

48) 해당 문장의 유래에 대한 표기는 『영추』로 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출처는 『영추』가 아닌 『동의보감』일 수도 있다. 이규준 의서의 『영추』를 인용했는지 『영추』의 어떤 판본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49) 『소문대요』가 참고한 판본에 대해서는 첸차오첸(錢超塵)이 선행 연구를 진행했으나 조선본 『황제내경소문』과의 비교를 누락했기에 오재근이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재근, 이규준 의서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203-221 참조.

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17.

47)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01.

『소문대요』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가하거나, 『소문대요』의 주석을 간략히 압축하거나, 『소문대요』 주석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계경장부편」과 『동의보감』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살피기 위해 분석했던 오장병치법(五藏病治法) 말미의 주석이다. 『소문대요』 「장기법시론」에서는 “심장과 폐장은 맑고 서늘해져야 하므로 신 맛과 쓴 맛을 쓴다. 간장과 신장은 따뜻해져야 하므로 매운 맛과 단 맛을 쓴다. 이것이 음양이 서로를 돕는 이치이다(心肺欲清凉, 故用酸苦, 肝腎欲溫燥, 故用辛甘, 此陰陽交濟之理也)”, “간장은 음 중의 양이므로 맵고 신맛으로 도와준다. 폐장은 양 중의 음이므로 신 맛과 매운 맛으로 도와준다(肝陰中之陽, 故辛酸以濟之. 肺陽中之陰, 故酸辛以濟之)”, “쓴 맛으로 신장 기운을 보충하는 것은 쓴 맛과 더운 성질로 습기를 말리는 것이다. 짠 맛으로 신장 기운을 덜어낸다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성질로 쌓여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用苦補腎者, 苦熱以燥濕也. 用鹹瀉腎者, 稟以消積也)의 세 개 주석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의감중마』에서는 일부 글자, ‘서늘하다(涼)’를 ‘거둔다(收)’, ‘따뜻하다(燥)’를 ‘발산한다(散)’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문맥에 맞도록 하나로 합쳐 신장 뿐 아니라 오장병 치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로까지 확장시켰다.

네 번째, 부록으로 첨부된 논문 중 「충유삼시변」을 제외한 「부양론」, 「기혈론」, 「신유양장변」은 모두 『소문대요』에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소문대요』 발간 이후에도 본인의 의학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다만, 「맥해」가 누락된 것은 『의감중마』 전체에서 진단에 대한 별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주하해」가 누락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기 내용의 배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의감중마』의 편찬과 이규준의 학문

이규준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

반도는 봉건 체제의 해체와 함께 극도로 혼란한 사회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밀려들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부패한 정권의 무기력한 대응에 반발하며 민중들이 봉기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대한제국 건립을 선포하며 기존 체제의 개혁을 피해보았지만 여의치는 않았다. 의학 부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1821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콜레라의 전국적인 확산은 조선 정부로 하여금 검역, 소독, 피병원 등의 설치를 비롯한 서구의 위생 및 의료 지식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동했으며,<sup>50)</sup> 선교사 등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서양식 병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적인 전염병 관리 등과 함께 새로운 의학이 한반도에 자리 잡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sup>51)</sup>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이규준은 오히려 기존 전통 의학의 논리를 강화하는 학문을 펼치고 있었다. 혹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규준의 주요 활동 무대가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영일군, 현재의 포항 인근인 만큼 당대의 최신 의학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당대 서양 의학의 한반도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으며, 1894년 조선 정부에 의해 실시된 갑오개혁은 서구식 보건의료 관제로의 전환마저 시도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던 공인(貢人) 지씨가 남긴 1891년 신식 병원 제증원에서 콧병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경북 예천에 거주하던 박씨가 남긴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일인의원의 의료나 1920년대 후반 읍내에서 신생 병원의 의료를 경험했다는 기록 등은<sup>52)</sup> 서양 의학이 이미 민중의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있

50)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침략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21.

51) 한국 근대 시기 선교사,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서양 의학의 전입 과정에 대해서는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 1997. pp.137-436, 박운재.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서울. 해안. 2005. pp.99-372 참조.

52) 이정현. 『하제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4). pp.39-53; 원보영. 의료민속 지식의 형성과 변화. 서울. 민속원. 2010. p.313.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규준 역시 자신의 저술 『포상기문(浦上奇聞)』 중에서 서양 사람에 의해 편찬된 『태잉도(胎孕圖)』에 대한 논평을 남기고도 있다.<sup>53)</sup> 신문·잡지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했던 이규준이었지만, 그 내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이치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며, 제 자신의 눈은 믿지 못하고 현미경이나 망원경 만을 믿는다고 비판할 정도였다.<sup>54)</sup> 이규준의 이와 같은 태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활동하던 김영훈(金永勳, 1882-1974)의 경우, 낙원동에서 보춘의원을 열어 진료를 하고 있었고, 동제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의학입문』이나 『동의보감』에 바탕을 둔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sup>55)</sup>

이규준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출간된 의서 『의감중마』 중에서 『황제내경』, 『동의보감』의 의학을 담아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규준은 어려서부터 유학 경전을 학습했던 조선의 전통적인 지식인이었다. 유학자의 시각에서 몸을 바라보았으며 의학 역시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계경장부편」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충유삼시변」에 잘 반영되어 있다.<sup>56)</sup> 「신유양장변」이 『동의보감』 「신장유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글이었다면, 「충유삼시변」은 『동의보감』 「삼시충(三尸蟲)」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 글이었다. 글 중에서 그는 삼시충(三尸蟲)을 둘러싼 도가와 불가의 논의를 구분한 뒤, 참된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眞性圓覺, 無所不通)는 이 문장은 도가의 논설 중에 불가 이야기가 섞여 들어간 것이나 유가 경전 『중용(中

庸)』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시충(尸蟲)을 죽이기 위해 경신일(庚申日)에 잠을 자지 않는 습속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부자인 당대(唐代)의 도사 정자소(程紫霄)의 시구를 인용해 비판한다.<sup>57)</sup>

이어지는 인용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규준은 공자를 추종했을 뿐 아니라 유교는 완전하며, 유가 경전 중에 도가, 불가, 심지어 기독교의 논의까지도 포괄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영남 지역의 유학자였다.<sup>58)</sup>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말을 감히 할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행동을 감히 실천할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예악을 쓸 수 없고, 공자의 도덕이 아니면 문장을 지을 수 없다.”<sup>59)</sup>

그는 도가나 불가들에 의해 전개되던 삼시충에 대한 신비스러운 설명 역시 유학의 논리로 설명 가능한 부분은 수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배제했다. 유학적 거름망을 활용한 이러한 여과 작업은 『의감중마』 양밀능수(陽密能壽)에서 『동의보감』에서 소개한 정(精)을 단련하기 위한 약물 처방은 모두 삭제한 채 유학자들의 구미에 맞는 절욕(節慾) 관련 문장만을 취한 점, 「신유양장변」 중에서 정(精)을 만들어내는 신장 속 명문의 존재를 부정한 점, 뿐만 아니라 책의 첫머리 장부도(藏府圖) 중에서 『동의보감』 신형장부도를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니환궁, 옥침관 등의 도가 수련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한 점, 『동의보감』 「내경편」의 정기신(精氣神)에 대한 주요 논의가 삭제된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감중마』 「계경장부편」은 이규준이 지닌

53)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포상기문.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28.

54)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포상기문.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28.

55) 차용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2). pp.251-255.

56) 「충유삼시변」은 서병오 간행 목판본 『의감중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발행년도도 알 수 없는 목판본 중에 처음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원세 교감본 『의감중마』 중에는 수록되어 있다.

57)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03.

58)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석곡심서.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40, 60.

59)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포상기문.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70.

존경숭고(尊經崇古)의 학문적 경향을 어김없이 드러낸다. 그는 송대 이후에 축적된 사서(四書) 중심의 신유학 성과를 비판하며 시대를 거슬러 한당대의 오경(五經)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sup>60)</sup> 그리고 이와 같은 학문적 기초는 의학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선의 대표 의서 『동의보감』을 토대로 『의감중마』를 편찬했지만, 근간에 해당하는 장부의 생리, 병리, 치료 방편 등은 의학 경전 『황제내경』으로 채우고 또 그 논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제마(李濟馬)가 『황제내경』을 대하던 태도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제마는 “『본초』, 『소문』이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소문』, 『영추』는 황제(黃帝)를 가탁한 의서로 괴이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도(道)라 부를 수는 없다... 이치는 생각해볼 만하지만, 주장울 모두 믿을 수는 없다”<sup>61)</sup>며 『황제내경』 이론의 수용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와 달리 이규준은 “위로는 하늘과 땅의 음양의 원리를 담고 있고, 가운데로는 죽고 사는 바의 연유를 통했으며, 아래로는 곤충 초목의 은미함을 살피고 있는 『황제내경』의 저술이 황제와 같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가능하겠는가”<sup>62)</sup>라며 『황제내경』 이론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사실 『황제내경』의 가르침을 의가의 근원(醫家之宗)로 숭앙하는 태도는<sup>63)</sup> 진부하게 반복되는 수사(修辭) 어구 정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의감중마』를 매개로 『황제내경』 의학을 실천 입장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규준에게 『황제내경』은 경전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황제내경』과 『의감중마』 사이에는 평생에 걸친 유교 경전

공부를 통해 성취한 심학(心學)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출된 심화(心火) 중심의 부양(扶陽) 의학이 있었다. 책의 편찬을 종용했던 김선구는 『의감중마』 서문 말미에서 “이 책이야말로 『황제내경소문』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길(門隧)이다. 자세하고도 은미한 오묘함은 『황제내경』에 있으니 이 책을 통한다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sup>64)</sup> 『의감중마』 완성에 대한 축하였을 뿐 아니라 이규준의 『황제내경』 임상 의학 전승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 6. 에필로그

미키사카에는 이규준에 대해 초오두를 사용해서 체질을 변경시키거나 신경계통의 질환을 치료한 일파의 의인(醫人)<sup>65)</sup>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규준이 남긴 의학적 성과가 재조명되면서 조선 말기의 유학자이자 임상 의가로 한국에서 드물게 의학 경전 『황제내경』에 대한 연구 성과인 『소문대요』를 남긴 의학자, 『동의보감』을 축약한 의서 『의감중마』, 『신농본초경』을 교정한 『본초경교정』을 남긴 의학자, 자신만의 의학 이론 부양론에 입각한 부양 의학을 제창한 의학자,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한의학 학술 유파, 부양학과·소문학회의 개창자 등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왜 초오두를 사용했는지, 주로 어떤 질환을 치료했으며, 어떻게 치료했는지는 확인치 않다.

『의감중마』는 이규준의 마지막 의학 저작이자 종합 임상 의서로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의학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 그 중 「계경장부편」에 대한 분석은 이규준의 이전 저작 『소문대요』를 통해 성취된 그의 의학 이론 창발이 『동의보감』을 매개로 실제 임상 의학에 어떻게 연착륙했는지, 조선의 유학자들이 어떻게 의학을 학습했는지, 나아가 유학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학 이론의 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등을 보여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

60) 안상우, 이규필, 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석곡심서.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p.68-73.

6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42책.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409, 414.

62) 이규준 편저. 素問大要. 서울. 대성의학사. 1999. p.1.

63) 李峻奎. 醫方撮要. 京城. 廣東書局. 1917. p.15. 『醫方撮要』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으며 쪽 수는 책이 아닌 이미지의 쪽 수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웹사이트 <http://jisik.kiom.re.kr/index.jsp>

64)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入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2.

6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59.

석 그리고 그 성과 정리 작업을 통해 서양 의학과 전통 의학이 조우하던 그 시점, 유의(儒醫) 이규준이 시도한 『황제내경』 의학 계승 작업의 역사적 의의와 그 전모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Kim Namil. *The Records of Figur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Medicine*. Seoul. Dulnyouk Publishing Co.. 2011. p.25;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서울. 들녘. 2011. p.25.
2. Kim Doojong.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Seoul. Tamgoodang. 1981. p.46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463.
3. Park Yunjae. *The Origin of Korean Modern Medical System*. Seoul. Hyeon Publishing Co.. 2005. pp.99-372;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해안. 2005. pp.99-372.
4. Shin Dongwon. *The Modern History of Health & Medicine in Korean*. Seoul. Hanul Publishing Co.. 1997. pp.137-436;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 1997. pp.137-436.
5. Shin Dongwon. *The Man of Joseon Dynasty*, Heo Jun. Seoul. Hangyeore newspaper. 2001. pp.86-87; 신동원. 조선 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pp.86-87
6. Shin Dongwon. *The Cholera attacked the Joeson Country*. Seoul. History Criticism. 2007. p.21;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침략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21.
7. An Sangwoo, Lee Gyupil, Jeon Byungchol. *The Sugok's dispersed manuscripts/The Book of Sugok's Heart theory/The Curious stories heard on Harbor* translated in Korean. Daejon. KIOM. 2009. p.28, 40, 60, 70, pp.68-73; 안상우·이규필·전병철 역. 이규준 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중 포상기문.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28, 40, 60, 70, pp.68-73.
8. Won Boyou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edical folklore Knowledge*. Minsokwon Publishing Co.. Seoul. 2010. p.313; 원보영. 의료민속 지식의 형성과 변화. 서울. 민속원. 2010. p.313.
9. Lee Gyoojoon. Volume of Guidance for Medical Students. *The Double grinded Medical Mirror*. Seoul. Daesung Medibook. 2000. p.1, 2, 7, 60, 95, 96, 100, 103, pp.97-98, 100-101; 이규준 편저. 醫鑑重磨 醫門立式.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 2, 7, 60, 95, 96, 100, 103, pp.97-98, 100-101.
10. Lee Gyoojoon. *The Major Essentials of Plain Questions*. Seoul. Daesung Medibook. 1999. p.1, 3; 이규준 편저. 素問大要. 서울. 대성의학사. 1999. p.1, 3.
11. Lee Jema., *The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Eastern Medicine*. Kim Shinkun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42.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p.409, 41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42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409, 414.
12. Heo Jun, et al.,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Kim Shinkun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11.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p.317; 許浚. 東醫寶鑑.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1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17.
13. Heo Jun, et al., *The Treasured Mirror of*

- Eastern Medicine*. Kim Shinkun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14.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p.290; 許浚. 東醫寶鑑.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4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90.
14. Hwang Doyeon. *The Gains and Losses of Medical Orthodoxy*. Kim Shinkun ed.. Sourcebook Series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vol. 25. Seoul. Yeogang Publishing Co.. 1988. pp.17-18; 黃度淵. 醫宗損益. 金信根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15책.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17-18.
15. Guo Aichun ed.. *The Inner Canon of the Yellow Emperor: Basic Questions, with Collation, Commentary, and Vernacular Translation*.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Co., 1981, p.31, 142, 146; 郭霽春 編.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p.31, 142, 146.
16. Lou Ying. *The Compendium of Medicine*. Beijing. Chinese Publishing Co.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6. p.66;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66.
17. Li Gao. *The Elucidation of Meidicine*. Zhang Nianshun, Wu Shaozhen, Zhang Hailing ed.. Li Dongyuan's Medical books Collection. Beijing. Chinese Publishing Co.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 p.185; 李杲. 醫學發明. 張年順, 吳少禎, 張海凌 主編. 李東垣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5
18. Qian Yi. *The Key to Therapeutics of Children's Diseases*. Li Zhiyong. ed.. Qian Yi & Liu Fang's Medical books Collection. Beijing. Chinese Publishing Co.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5. p.14, 26, pp.60-62; 錢乙. 小兒藥證直訣. 李志庸 主編. 錢乙劉昉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4, 26, pp.60-62.
19. Miki Sakae.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and of Diseases in Korea*. Osaka. Miki Sakae. 1962. p.209, 259, 28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09, 259, 282.
20. Miki Sakae. *The Bibliography of Joseon Medical Books*. Osaka. Gakujuitsu tosho kankoukai. 1973. p.163;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163.
21. Kwon Ohmin et al.. A Study on the Editions and Composition of *Uigamjungma*. *Korean J. of Oriental Medicine*. 2010. 16(1). pp.1-9; 권오민 외 5인.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2010. 16(1). pp.1-9.
22. Kim Dongwoo. The comparison and investigaion about chapter blod(血門) betwen *Dongeuibogam* (東醫寶鑑) and *Euigamjungma* (醫鑑重磨). *J. Somun Oriental Medical Society*. 2008. 11. pp.41-48; 김동우. 『醫鑑重磨』와 『東醫寶鑑』의 血門에 대한 비교고찰. 素問學會誌. 2008. 11(1). pp.41-48.
23. Kim Hongkyun, Kim Namil. The names of successive Doctors of *Ui-Rim-Chual-yo*. *J. of KyungHee Oriental Medicine College*. 1998. 21(1). p.115; 김홍균, 김남일.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 21(1). p.115.
24. Park Sukjoon.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stern Asian Premodern Society and *Dongeuibogam*. Ph.D. thesis of Kyunghee Univ.. 2005. pp.141-143; 박석준. 동아시아 전근대 의학

- 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성격. 경희대 박사 학위논문. 2005. pp.141-143.
25. Sung Hojun. A study of Taoism thought in the Internal sight Section of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0. 13(1). pp.263-267; 성호준. 東醫寶鑑·內景篇의 道敎思想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1). pp.263-267
  26. Sung Hojun. Concept establishment of he Scholar Physician and Zhang Jiebin.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7. 20(1). p.135; 성호준. 儒醫의 개념정립과 張介賓.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 20(1). p.135.
  27. Sung Hojun. A study on the Scholar Physician, Lee Gyoojoon's Heart Theroy. *Yongsan J.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2012. 9. p.56, 60, pp.61-62; 성호준. 조선 후기 儒醫 李圭峻의 心에 관한 研究. 東洋文化研究. 2012. 9. p.56, 60, pp.61-62.
  28. Oh Chaekun, Yoon Changyeol. A Study on the Transcription of Correction of the *Classic of Materia Medica* (本草經校正).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3). pp.321-336; 오재근, 윤창열.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서지학적 고찰 및 내용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p.321-336.
  29. Oh Chaekun, Yoon Changyeol. A Study on the Song of the nature of herbal medicine of *Uigamjoongma. J. of Somun Oriental Medical Society.* 2009. 12(1). pp.9-27; 오재근, 윤창열. 醫鑑重磨의 藥性歌에 관한 연구. 素問學會誌. 2009. 12(1). pp.9-27.
  30. Oh Chaekun. Study on the circulated versions of *Major Essential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Plain Questions* (黃帝內經素問大要), and its original publication: Chosun's version of *Huangdi's Internal Classics Plain Questions* (黃帝內經素問).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4). pp.203-221; 오재근. 이규준 의서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4). pp.203-221
  31. Oh Chaekun. Birth and Succession of A Current of Learning in Korean Medicine. *Korean J. Medical History.* 2014. 23(1). pp.57-98; 오재근. 부양학과, 한국 전통 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전승. 醫史學. 2014. 23(1). pp.57-98
  32. Lee Jeonghyeon. A Look into the Changes in Medical Activitie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through "Hajae's Diary".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4). pp.39-53; 이정현. 『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4). pp.39-53.
  33. Lee Sangman, Eom Hyunsup, Chi Gyooyong. A comparative study on theories of optical disease based on *Si-sheng-xin-yuan* and *Eui-gam-jung-ma.* *Korean J. of Physiology & Pathology.* 2003. 17(5). pp.1141-1146; 이상만, 엄현섭, 지규용. 四聖心源과 醫鑑重磨의 안병이론에 관한 비교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5). pp.1141-1146.
  34. Cho Namh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Heojun's *Dongui bogam.* *J. of Eastern Studies.* 2006. 134. pp.342-347; 조남호. 『동의보감』의 이론적 구조와 그 성격. 東方學志. 2006. 134. pp.342-347.
  35. Cha Wung Seok. Chonggang Kim

- Younghoon and Susehyunsuh. *The J.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1. 14(2). pp.251-255; 차웅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 현서.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2). pp.251-255.
36. Hwang Wondeuk. Study of Suk Gock's fortify Yang theory. *Korean J. of Physiology & Pathology*. 2004. 18(3). pp.713-723; 황원덕. 石谷 李圭峻의 扶陽理論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18(3). pp.713-723.
37. Hwang Wonedeok. A study on a sentence "If Yin imitates Yang, it surely causes battle" in Qi-blood theory. *J. of Somun Oriental Medical Society*. 2013. 15(1). pp.1-8; 황원덕. 「氣血論」 문구 중 "陰擬於陽, 必戰"에 대한 少考. *素問學會誌*. 2013. 15(1). pp.1-8
38.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by KIOM [cited 2015 Jan 16] Synopsis of the Medical Formulas.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index.jsp>;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 명저총서 웹사이트 [cited 2015 Jan 16] 의방촬요.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index.jsp>.
39. Websit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ited 2015 Jan 16] Jeongjo Vol.52, 11th Dec. 1799.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cited 2015 Jan 16] 正祖 52권, 23년(1799) 12월 11일.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
40. An Sangwoo. Strolling Old Medical Books 154. *The Minjok Medicine News*. 25th Apr. 2003. [cited 2015 Jan 16]. Available from: URL: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 안상우. 고 의서산책 154. *민족의학신문* 2003년 4월 25일

[cited 2015 Jan 16]. Available from: URL: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

부록 1. 「동의보감」, 「의감중마」의 소제목 내용이 포함된 「황제내경」, 「황제내경소문대요」 개별 편·론

| 「동의보감」   | 「의감중마」 | 「황제내경소문대요」 | 「황제내경」       |
|--|--------|------------|--------------|
| -  | 藏府陰陽   | 「生氣通天論」    | 『素問』「生氣通天論」  |
| 臟腑陰陽   |        | 「金匱眞言論」    | 『素問』「金匱眞言論」  |
| 臟腑異用   |        | 「靈蘭秘典論」    | 『素問』「五藏別論」   |
| 臟腑有合   | 藏府配合   | 「金匱眞言論」    | 『靈樞』「本輸」     |
| 肝主時日 肝屬物類 心主時日 心屬物類 脾主時日 脾屬物類 肺主時日 肺屬物類 腎主時日 腎屬物類                  | 五藏體用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  |        | 「金匱眞言論」    | 『素問』「金匱眞言論」  |
| 肝形象 肝部位 心形象 心部位 脾形象 脾部位 肺形象 肺部位 腎形象 腎部位                            |        | -          | -            |
| 胃爲水穀之海   | 六府傳受   | -          | -            |
| 大腸病治法  |        | -          | 『靈樞』「師傅」     |
| 胃傷證  |        | -          | 『素問』「痺論」     |
| 三焦形象 三焦傳受  |        | 「靈蘭秘典論」    | 『靈樞』「營衛生會」   |
| 膽形象 膽部位 胃形象 胃部位 小腸形象 小腸部位 大腸形象 大腸部位 大小腸連系 小腸傳受 膀胱形象 膀胱部位 三焦部位 三焦傳受 |        | -          | -            |
| -  |        | 「六節藏象論」    | 『素問』「六節藏象論」  |
| 肝主時日 心主時日 脾主時日 肺主時日 腎主時日   |        | 五藏主時       | 「藏氣法時論」      |
| 人身猶一國  | 五藏有官   | 「靈蘭秘典論」    | 『素問』「靈蘭秘典論」  |
| 五味所入 五氣所病 五臟所惡 五臟化液 五味所禁 五邪所見 五臟所藏 五臟所主 五勞所傷 五脈應象                  | 藏府所司   | 「靈蘭秘典論」    | 『素問』「宣明五氣」   |
| 咽與喉各異 汗因濕熱   | 身形所屬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諸脉屬目 腦爲髓海 膝爲筋府 七情動血 肺主氣  |        | 「靈蘭秘典論」    | 『素問』「五藏生成」   |

|   |       |          |              |
|---|-------|----------|--------------|
| 氣爲衛衛於外 可汗不<br>可汗證 背偃倮 筋急筋<br>緩 破傷風形證 濕熱 | 氣血榮衛  | 「生氣通天論」  | 『素問』「生氣通天論」  |
| 血爲榮                                     |       | -        | -            |
| 目者肝之竅                                   |       | 「靈蘭秘典論」  | 『素問』「五藏生成」   |
| 精爲身本                                    | 男女精胞  | -        | 『靈樞』「決氣」     |
|   |       | 「金匱真言論」  | 『素問』「金匱真言論」  |
|   |       | -        | 『靈樞』「五癢津液別」  |
|   |       | -        | 『素問』「解精微論」   |
|   |       | -        | 『靈樞』「海論」     |
| 胞爲血室                                    |       | -        | 『靈樞』「五音五味」   |
| 血閉                                      |       | -        | 『素問』「評熱病論」   |
| 年老無子                                    | 精盛有子  | 「上古天真論」  | 『素問』「上古天真論」  |
| 精宜秘密                                    | 陽密能壽  | 「生氣通天論」  | 『素問』「生氣通天論」  |
| -                                       |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節慾儲精                                    |       | -        | -            |
| 五臟中邪                                    | 五藏中邪  | -        | 『靈樞』「邪氣藏府病形」 |
| 脾傷證 腎傷證                                 |       | -        | -            |
| 心病證 肺病證 肝病證<br>脾病證 腎病證                  | 五藏病證  | -        | 『靈樞』「五邪」     |
| 心病虛實 肺病證 肝病<br>虛實 脾病虛實 腎病虛<br>實         |       | 「藏氣法時論」  | 『素問』「藏氣法時論」  |
| 肝病證 心病證 脾病證<br>肺病證 腎病證                  |       | -        | -            |
| 膽病證 胃病證 小腸病<br>證 大腸病證 膀胱病證<br>三焦病證      | 六府病證  | -        | 『靈樞』「邪氣藏府病形」 |
| 心病虛實 肺病虛實 肝<br>病虛實 脾病虛實 腎病<br>虛實        | 藏府病虛實 | -        | 『靈樞』「本神」     |
| 大腸病證                                    |       | -        | 『靈樞』「師傳」     |
| 胃病虛實                                    |       | -        | 『素問』「脈要精微論」  |
| 眩暈 脹滿形證                                 |       | 「靈蘭秘典論」  | 『素問』「五藏生成」   |
| 邪精虛實                                    |       | 「通評虛實論」  | 『素問』「通評虛實論」  |
|   |       | -        | 『素問』「評熱病論」   |

|   |         |          |                           |
|---|---------|----------|---------------------------|
| 辨陰陽二證   | 藏府病異證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臟腑異證  |         | -        | -                         |
| 臟腑病治有難易                                       |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肝病問甚  | 五藏病問甚   | 「藏氣法時論」  | 『素問』「藏氣法時論」               |
| 五臟病問甚   |         | 「藏氣法時論」  | 『素問』「藏氣法時論」               |
| 臟腑病緩傳   | 五藏病傳乘   | 「通評虛實論」  | 『素問』「玉機真藏論」               |
| -   |         |          |                           |
| 肝病治法 心病治法 脾病治法 肺病治法 腎病治法                      | 五藏病治法   | 「藏氣法時論」  | 『素問』「藏氣法時論」               |
| 氣味升降  |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四肢不用 脾部位                                      | 「太陰陽明論」 | 「太陰陽明論」  | 『素問』「太陰陽明論」<br>『素問』「陽明脈解」 |
| 自汗 癰疽發病之原 瘡瘵 疔瘻 瘡病之源                          | 「風論」    | 「生氣通天論」  | 『素問』「生氣通天論」               |
| 中風所因 大風瘡 腦風證 首風證 漏風證 腎風證 浮腫徵兆 浮腫之因            |         | 「風論」     | 『素問』「風論」                  |
| 痰飲外證  |         | -        | 『靈樞』「論疾診尺」                |
| 三痺 五痺 痺病吉凶 痺病形證                               |         | 「風論」     | 『素問』「痺論」                  |
| 傷寒或愈或死日期 傷寒傳經 傷寒治法 傷寒遺證 兩感傷寒爲死證 傷寒傳變爲溫爲暑 陰陽交證 |         | 「熱論」     | 「熱論」                      |
| 寒腹痛 腹痛有虛實 冷心痛 積聚之因 腹痛嘔泄 熱腹痛 明堂察色 九氣           | 「舉痛論」   | 「舉痛論」    | 『素問』「舉痛論」                 |
| 瘡疾形證 瘡發日數多少 瘡發有晝夜早晏之異                         | 「瘡論」    | 「瘡論」     | 『素問』「瘡論」<br>『素問』「刺瘡」      |
| 陰陽虛盛  | 「厥論」    | -        | 『素問』「調經論」                 |
| 厥有寒熱  |         | -        | 『素問』「厥論」                  |
| 痿病之因  |         | -        | 『素問』「痿論」                  |
| 內經病機 五味藥性                                     | 病機      | 「至真要大論」  | 『素問』「至真要大論」               |
| 用藥大體  |         | 「陰陽應象大論」 | 『素問』「陰陽應象大論」              |

|      |   |         |         |   |
|------|---|---------|---------|---|
| -    | 附 | 「扶陽論」   | 「扶陽論」   | - |
| -    |   | 「氣血論」   | 「氣血論」   | - |
| 腎臟有二 |   | 「腎有兩藏辨」 | 「腎有兩藏辨」 | - |
| 三尸蟲  |   | 「蟲有三尸辨」 | -       | - |

\* 『의감중마』의 단락 및 내용 상의 구분에 따라 『황제내경』, 『황제내경소문대요』, 『동의보감』을 구분했음.

부록 2. 『황제내경소문대요』의 『황제내경』 원문 수정과 『의감중마』의 인용

|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원문 수정 |      |                                  | 『의감중마』 「계경장부편」   |            |       |
|-------------------|------|----------------------------------|--|------------|-------|
| 구분                | 舊    | 今正                               | 문장 및 주석의 인용  | 소제목        |       |
| 卷之一               | 篇一   | 閉塞<br>惡氣                         | 剛塞<br>陽氣   | -          |       |
|                   | 篇二   | 因於氣                              | 因於風  | 因於風爲腫 四維相代 | 氣血榮衛  |
|                   | 篇四   | 悲憂                               | 思憂   | -          |       |
| 卷之二               | 篇七   | 溫食<br>寒飲食寒衣<br>焯焯溫炙衣             | 脾禁寒食<br>肺禁焯焯溫炙衣<br>腎禁寒飲食寒衣   | 他藏倣此       | 五藏病間甚 |
|                   | 篇九   | 可下                               | 可溫而已   | 其滿三日者 可溫而已 | 熱論    |
|                   |      | 煩滿不爲                             | 煩滿 煩滿不爲  | -          |       |
| 卷之三               | 篇十六  | 尺外<br>不躁<br>濇者<br>滑者<br>而躁<br>而死 | 尺裏 <small>此以下五內外字今皆與正</small><br>浮而躁<br>切之滑者<br>切之濇者<br>三動曰躁<br>四日而生 | -          |       |
|                   |      | 天以六爲節<br>地以五爲制<br>六菴<br>五歲       | 天以五爲制<br>地以六爲節<br>五歲<br>六菴   | -          |       |
|                   | 篇二十二 | 應近<br>應遠<br>-                    | 應遠<br>應近<br>小常之二 <small>此下當有其皆遲三字</small>                            | -          |       |

부록 3. 「의감증마」「계경장부편」과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주석 비교

|           | 「醫鑑重磨」   | 「黃帝內經素問大要」  |       |
|-----------|--|---|-------|
| 藏府陰陽      | 十二節 四肢各三節 其生五藏 其氣三焦  | 其生五藏 其氣三焦   | 生氣通天論 |
| 五藏體用      | 說卦 巽爲鷄   | 說卦曰 巽爲雞   | 金匱眞言論 |
|           | 歲星 十二年 一周天   | -   |       |
|           | 五常政大論 其畜馬  | 羊當作馬 五常政大論曰 心畜馬 說卦曰 乾爲馬 此從先天也   |       |
|           | 熒惑星 七百三十日 一周天  | -   |       |
|           | 說卦 坤爲牛   | 說卦曰 坤爲牛   |       |
|           | 填星 二十八年 一周天  | -   |       |
|           | 五常政大論 其畜羊  | 馬當作羊 五常政大論曰 肺畜羊 說卦曰 兌爲羊   |       |
| 五藏主時      | 太白星 一年 一周天   | -   | 六節藏象論 |
|           | 說卦 坎爲豕   | 說卦曰 坎爲豕   |       |
| 五藏有官      | 罷音皮  | 罷音疲   | 靈蘭秘典論 |
|           | 環脣白肉際  | 脣四際 白色肉也  |       |
|           | 位高非君 官相傳也 分布榮衛 治節由之  | 位高非君 猶政府之布令也  |       |
| 藏府所司      | 臆中在兩乳間 爲氣之海 心爲君主 而臆宣布教令 故官臣使也                                  | -   | 靈蘭秘典論 |
|           | 津液所聚 猶都邑之輻湊也   | 津液所聚 猶都邑之輻湊也  |       |
| 身形所屬      | 胃以腎爲關 關閉不利 則爲氣逆 并於腎則爲恐   | 噫與噯 同吞 吞酸也 欠 氣乏而藏也 噦 憤噦而通也 胃關在腎 故爲逆爲恐也                                    | 靈蘭秘典論 |
|           | 谿者 骨之小會 名八谿 八谿 謂肘膝腕也   | 八谿 謂肘膝腕也  |       |
| 氣血榮衛      | 天無日光 則無以紀運 人無陽氣 則不能運動 無所知覺 陽行乎陰上 以衛外禦寒也                        | 天無日光 則無以紀運 人無陽氣 則不能運動 無所知覺 陽行乎陰上 以衛外禦寒也                                   | 生氣通天論 |
|           | 陽氣 因於寒 則眩暈 如運樞狀 神昏如浮   | 陽氣 因於寒 則眩暈 如運樞狀 神昏如浮  |       |
|           | 因於暑 則汗喘多言 雖體燠 如燔炭而汗出可已   | 因於暑 則汗喘多言 雖體燠 如燔炭而汗出可已  |       |
|           | 首如裹 謂如以物蒙冒 頭目不清明 濕氣入內 則大筋縮短 而爲僂 熱氣蒸上 則小筋弛長 而爲痿 大筋腹中之筋也 小筋支脚之筋也 | 因於濕 則頭目不清 如蒙裹然 濕熱不除 則濕氣入內 故大筋爲之縵短 熱氣出外 故小筋爲之弛長 大筋腹中之筋也 小筋支脚之筋也 拘 僂也 痿 足萎也 |       |
| 陽氣竭 則生道盡矣 | 陽氣竭 則生道盡矣  | 靈蘭秘典論   |       |
| 目爲肝官      | -  |   |       |
| 澀         | -  | 靈蘭秘典論   |       |
| 精盛有子      | 七少陽數 八少陰數 男八女七 陰陽交   | 七少陽數 八少陰數 男八女七 陰陽交  | 上古天真論 |

|       |   |   |        |
|-------|---|---|--------|
|       | 易之妙也 更平聲 長上聲<br>天癸 北方水也 地道 謂經水月事也   | 易之妙也 更平聲 長上聲<br>天癸 北方水也 任脈衝脈 皆腹中奇經脈也 督脈在後 任脈在前 衝脈在中 任 懷妊之義也 經水溢下 與月盈虧 故曰月事也   |        |
| 五藏病證  | 氣上迫肺 則腎元虛 故尻陰以下皆痛<br>腎脈連心 腎邪攻心 心火迫肺故也<br>腎脈連肺 絡心注胸中 腎氣既虛 心氣熏肺 故痛聚胸中 腎氣既虛 則太陽之氣 不能盛行於足 故足冷氣逆也  | -   | 藏氣法時論  |
| 六府病證  | 鞏 陰丸也<br>溼大便 溲小便  | -<br>-  | -<br>- |
| 藏府病虛實 | 佻蒙 眩冒也 招尤 眩暈貌也  | 巔者顛也 癩疾也 下上謂腎心也<br>佻蒙招尤 眩暈狀也  | 靈蘭秘典論  |
| 藏府病異證 | 能奴代反  | 能奴代反  | 陰陽應象大論 |
| 五藏病間甚 | 他藏倣此  | 慧知時起也   | 藏氣法時論  |
| 五藏病治法 | 綱目云 腎本無實不可瀉 愚謂 心肺陽也 故補以陰味 肝腎陰也 故補以陽氣 所謂用苦補者 瀉其濕耳 寫濕則腎堅矣 故心肺欲清收 肝腎欲溫散 此裁相交濟之妙也 新訂  | 心肺欲清涼 故用酸苦 肝腎欲溫燠 故用辛甘 此陰陽交濟之理也<br>肝陰中之陽 故辛酸以濟之 肺陽中之陰 故酸辛以濟之<br>用苦補腎者 苦熱以燥濕也 用鹹瀉腎者 稟以消積也   | 藏氣法時論  |
| 風論    | 高粱膏粱 古文音通 偏枯 半身不遂也 痲痺 瘡如粟大 皴如山查大 皆小瘡也 丁腫如釘堅 惡瘡也 膏粱之人 皮肉脆 稟 受風量易也<br>瘦 漏也 風氣陷入于經脈 則瘡潰水出 如漏然<br>俞 穴名 背有藏府十二俞 陽氣怕寒 故善畏而驚駭<br>營氣 脾胃宣布之氣 脾主肉 風傷則營氣不行<br>魄汗形汗也 陰成形 夫暑汗未盡 方形弱而氣燠 又被風薄 則穴俞以閉 發為風瘡矣<br>清淨謂恬憺也 精神內守 病安從來 此順四時寒暑之序故也<br>并交也 陽為寒薄則反升 蓄積於上 故暴死然 此乃陽氣隔塞 塞者亟瀉則通矣 | 高粱膏粱 古文音通 偏枯 半身不遂也 痲痺 瘡如粟大 查如山查大 皆小瘡也 丁腫如釘堅 惡瘡也 高粱之人 皮肉脆 稟 受風最易也<br>瘦 漏也 風氣陷入于經脈 則瘡潰水出 如漏然<br>俞 穴名 背有藏府十二俞 陽氣怕寒 故善畏而驚駭也<br>營氣 脾胃宣布之氣 脾主肉 風傷則營氣不從<br>魄汗形汗也 陰成形 夫暑汗未盡 方形弱而氣燠 又被風薄則穴俞以閉 發為風瘡矣<br>清淨謂恬憺也 精神內守 病安從來 陽為寒薄則反升 蓄積於上 故暴死然 此乃陽氣隔塞 塞者亟瀉則通矣 | 生氣通天論  |
|       | 風府 腦後穴名   | -   | 風論     |

|    |  |  |        |
|----|--|--|--------|
|    | 係頭 目系<br>隱曲者 隱蔽委曲之事 謂月事也<br>痺者閉也 手足氣閉 如繩札狀也 著直<br>畧反 | 繫頭 眼系也<br>隱曲者 隱蔽委曲之事 謂月事也<br>痺者 手足不仁狀 如繩扎然 |        |
| 熱論 | 交謂交合 陰陽之氣 不分別也<br>無俾者 無可使食而爲汗                        | 交謂交合 陰陽之氣 不分明也<br>無俾言 無可使爲汗也               | 熱論     |
| 厥論 | 玄府 汗空也   | -  | -      |
| 病機 | -  | 陽戰陰 故鼓慄                                    |        |
|    | 陰極生熱 故腹大而堅<br>火爭水 故有聲                                | 陰極生熱 故腹大而堅<br>火爭水 故有聲                      | 至真要大論  |
|    | 陽虛則攻陰 陰虛則攻陽<br>掣引 導引也                                | -  | 陰陽應象大論 |

